바이든-트럼프 '대선 모드'…격전지 조지아주서 '설전'

오늘 예비선거…각 당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 속 본선 대비

'민주주의'·'국경 정책' 비방 수위 높이며 지지층 결집 주력

미국 대선 재대결이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대결이 시작됐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를 동시에 찾아 첫 유세 대결을 벌였다.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0.23%포인트, 1만 2000표도 안되는 차이로 승리한 경합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일 조지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계기로 방문했으나 이미 두 사람은 각 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여서 본선을 대비하는 의미가 더 커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자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여기는 '민주주의'와 '국경 정책'을 두고 비방 수위를 높여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의 주도 애틀랜타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는 11월 투표에 우리의 자유가 정말로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로 평가받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전날 자신의 플로리다 자택으로 초대한 것을 두고 "전 세계의 독재자와 권위주의 깡패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애편지를 주고받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왕'이라고 부른 것을 자랑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리 동맹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면서 "난 그가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축하하는 대신 "그들을 해충이라 부르고, 그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여성의 낙태권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려고 한다면서 "내가 지켜보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親)팔레스타인 성향의 한 남성이 바이든 정부의 친이스라엘정책을 비판하며 "집단학살자 조(Genocide Joe)"라고 소리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난 그의 열정이 불쾌하지 않다.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많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의 지역구이자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의 롬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고리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맹비난했다.

조지아주의 오거스타대학 재학생인 라일리는 지난달 22일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2022년 9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입국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우리 국경과 이 나라의 국민에게 한 짓은 반인륜 범죄이며 그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바이든이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미국의 국경을 없애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위험한 범죄자들을 풀어놓지 않았다면 라일리는 오늘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라일리 살해 혐의를 받는 이주민을 '불법 이민자'라고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가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넌 해고야!"를 외치자 지지자들이 환호했다.

라일리 부모는 이날 유세에 참석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전에 라일리의 부모를 별도로 만나 위로했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조지아주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만1779표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특히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를 관리하는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패배를 뒤집는 데 필요한 "1만 1780표를 찾아라"라고 명령했고, 이 행위로 인해 선거 방해 혐의로 작년 8월 형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패니 윌리스 지방검사장을 한참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할 때는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동일본 대지진 13주기

동일본 대지진 발생 13주기인 11일 일본 도쿄 시내 한 상점에 '3.11' 숫자가 표시돼 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으로 2만명 가까운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라마단 휴전' 불투명

주변국 중재 노력 속 휴전·인질 맞교환 등 '팽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3월 10일~4월 8일)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변국들이 휴전 합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와 카타르 등의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의 맞교환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 생존자와 석방 대상자, 인질 석방의 대가로 풀려날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협상단도 보내지 않았다.

하마스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일선 부대와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스라엘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군과 영구 휴전 논의 개시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등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철군도 휴전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와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라마단 기간에도 휴전이 체결되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 갑부' 엎치락뒤치락

루이뷔통 회장 1위 탈환…265조 3200억원

아마존 베이조스 '3일 천하'·테슬라 머스크 順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놓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 7일 기준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호 타이틀을 탈환했다.

현재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가치는 2010억 달러(265조 3200억원)로 유일하게 2000억 달러를 넘으며, 1980억 달러의 베이조스를 앞질렀다.

아르노 회장이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말 머스크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9개월여만이다.

베이조스는 지난 4일 머스크를 제치고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3일 만에 아르노 회장에게 다시 타이틀을 내줬다.

오랜기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머스크는 1890억 달러의 재산 가치로 아르노 회장과 베이조스에게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머스크는 4위인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도 쫓기게 됐다. 저커버그의 재산 가치는 1820억 달러다.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올해 이들이 보유한 주가가 요동치면서 자리바꿈이 잦아지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지난해 말 248달러였던 주가가 175달러로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머스크의 재산 가치도 올해에만 404억 달러 감소했다.

반면, 아마존 주가는 작년 말 151달러에서 175달러로, LVMH도 733달러에서 844달러로 각각 약 15%씩 상승했다.

메타의 주가는 353달러에서 505달러로 43% 급등해 저커버그의 재산 가치는 535억 달러 상승했다.

1위 아르노 회장부터 4위 저커버그 CEO 간 재산 가치 차이는 19억 달러로, 당분간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주가가 76% 급등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772억 달러로 재산 가치로 20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